

## 교원, 연구사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영예로운 척후병이 되자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애국의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번영의 위대한 역사를 새겨온 자랑스런 투쟁과 전진의 해 주체108(2019)년을 보내고 새해 주체109(2020)년을 맞이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의 굴함없는 투쟁의 한해가 또다시 시작되는 첫 아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 접한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가슴가슴은 무한한 격동과 흥분으로 끓어번지고 필승의 신심과 배짱은 백배해지고있다.

지난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도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난국을 맞받아 도도히 전진비약해나가는 주체조선의 강인한 기상과 막강한 잠재력을 크게 과시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정보과학부문의 교원, 연구사들은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형흑백색사진문헌자료들을 천연색화하기 위한 초고해상도흑백색사진의 천연색화체계 《목란》 1.0을 훌륭히 개발완성하여 흑색사진문헌자료의 천연색화시간을 종전에 비하여 훨씬 줄일수 있게 하였으며 나라의 산업구조를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을 자료망을 통하여 수집 및 분석하고 제품의 생산공정과 설계, 주문생산, 고장예측 및 보수 등을 높은 수준에서 원활하게 실현하는 지능화된 수자산업구조로 전환시킬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경공업부문 공장들을 지식경제시대의 표본, 본보기공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지난해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령도자와 뜻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높은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의 필연적 결과이다.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이고 실천이며 승리라는 철리를 더욱 깊이 새기였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정면돌파전으로 사회주의건설의 활로를 열어나아가야 할 영예로운 투쟁임무가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당과 전체 인민이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우리 당이 결심한 정면돌파전은 주도권을 틀어쥐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부닥친 난국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우리 당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영예로운 척후병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한 확신에 넘쳐 새해진군의 보폭을 더 크게, 더욱 힘차게 내짚어야 한다.

정보과학부문의 교원, 연구사들은 과학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승리하게 되며 강국의 리상과 목표도 오직 과학의 첨단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고심어린 탐구와 투신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세계를 굽어보는 안목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착상하고 창조하여야 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새 기술, 새 제품, 새 재료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색전, 탐구전을 벌리며 자립경제의 토대와 위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적인 방법으로 흑백색화상(사진)을 천연색화상(사진)으로 넘기는 작업을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하여 완전히 자동적으로 진행하는 체계를 비롯한 많은 인공지능첨단제품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완벽하게 실현하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기 위한 사업에 품을 들여야 한다.

올해는 정면돌파전의 첫해이다.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각오와 결심을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보란듯이 기적을 창조하여야 적들의 기를 꺾고 당의 전략적구상관철을 위한 개척로를 힘차게 열어제낄수 있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불굴의 혁명신념과 불같은 조국애, 건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난관을 격파하며 당창건 75돛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세계를 뒤흔드는 자력부강의 승전포성을 더 우렁차게, 줄기차게 울려나가자.